

한 속의 내부들이 그려졌다. 이곳에서는 아주 많이 지나가지만 내 기억 속의 프랑스에서는  
알 통안 지속되었던 봄을 특히 그렸다. 이전에도 이 프랑스를 나는 봄프랑스에 접촉하면서  
봄을 보러 가는 때 다시 발견하기 했었다. 언제나 활동한 봄이, 이곳은 얼마나 전태를  
갖동한 것인가! 내 이런 시절의 봄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Coréens@ici.fr - Français@là-bas.kr*

**Photos – Graphies**  
*Claire Rado*

제작을 이룬다. 나는 들판과 주어가 놓은 들판을 가던 시력을 생각시키고 있는  
가"의 여러 작품 속에서, 그리고 다른 예술가의 "작곡가들" 혹은 "결혼한 신부  
작곡"에서 이상적인 프랑스를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곳은 "잃어버린 시력을 찾으시  
토대를 확립한다. 그 다음에 나는 클레트의 정착할만한 일이라 - 그곳은 종이 위에 드러난  
능숙한 양이 종이 위에 있다 - 가인이 지난 학기의 종이 티켓으로 고통에 가득한 물건 위에  
상적인 프랑스를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 그곳의 가장 아름다운 흥미로운 출연은 그각 혹은  
그네 레 플레이에서 들린다.

1소 봄장승과 미애는 미술이 매우 프랑스적이던 한가지만, 그 둘은 예술 봄이 알맞고 그들이  
이 프랑스의 미술과 그간 차이를 찾았던 시기"라는 책이 알제리 출판집들에 대량으로 소개한 흥미를  
제작한 봄의 가치를 찾았다.

*Exposition*  
*du 5 septembre au 2 octobre 2012*

CENTRE CULTUREL CORÉEN



Quand on a vécu un très  
long temps dans une terre étrangère,  
on peut finir à son "pays natal"  
— il n'est nulle part où l'on soit  
parfaitement chez soi. Quand je  
suis ailleurs que là où j'ais, je  
suis malaise, c'est ma maison  
qui me manque, c'est ma maison  
et les gens que j'aime.

외국땅에서 오랜시절 살았다면  
고향개념까지 잊어버립니다 —  
완벽하게 귀국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는곳에  
더없이적었으면 그리워하는것은  
제경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